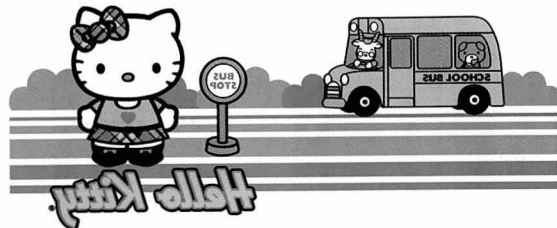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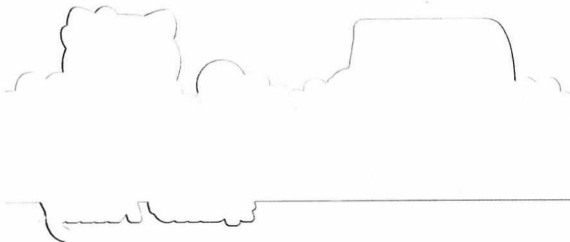


어떤 옷감에나 이미지 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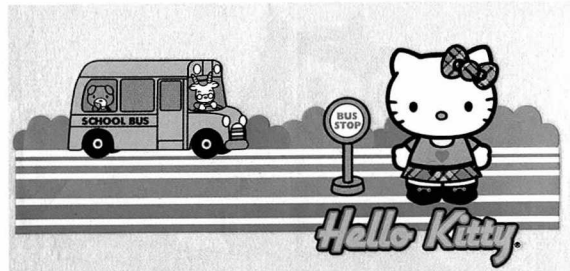
① 이형지 위에 고무 층을 도포한다.



② 이미지를 거꾸로 오프셋인쇄한다.



③ 오프셋인쇄 위에 하얀색으로 스크린인쇄를 하고, 또 그 위에는 접착제를 도포한다.



④ 다리미 등 열기구를 이용해 옷감에 전사한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모든 사물이 컬러풀하게 바뀌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의류분야도 마찬가지여서 옷감의 색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그림이나 사진 같은 이미지를 표현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상표명이 조그마하게 붙어 있었던 것이 이제는 큼직하게 들어가기도 한다. 과연 상표명이나 그림, 사진 등은 어떻게 표현을 할까. 물론 직접 옷감에 인쇄하는 방법을 비롯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일반인들도 누구나 쉽게 가열된 다리미, 프레스 등 열기구를 이용해 전사할 수 있는 고무전사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옷감에 전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는 고무전사, 승화전사, 수지전사, 졸전사 등이 있으며 이밖에도 명칭을 달리하는 여러 방법들이 보여지고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옷감의 종류에 따라서도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다.

고무전사는 주로 실크스크린인쇄를 이용해 간단한 로고나 상표명 등에 이용돼 왔지만 지금은 정교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오프셋인쇄와 스크린인쇄를 모두 이용하는 방법도 선을 보이고 있다.

고무전사는 이형지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불투명 또는 반투명 이형지와 투명 이형지 등을 사용한다. 하지만 투명 이형지가 비싸기 때문에 주로 불투명 이형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사하는데 까다롭

다거나 비싼 제품에 전사를 할 경우에는 투명 이형지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우선 스크린인쇄만을 이용하는 방법은 디자인과 제판과정을 거쳐 판을 만든다. 이때 표현되는 이미지는 거꾸로 보여야 한다. 인쇄한 후 하얀색을 입히고 나서 접착제를 바르는 경우도 있고 그냥 접착제만 바르는 경우도 있다.

오프셋인쇄와 스크린인쇄를 모두 이용하는 방법은 디자인, 제판 과정을 거치는데 제판과정은 원색분해를 해서 분판 필름 출력한 후 소부해서 오프셋인쇄를 한다. 이것은 정교한 부분까지 표현을 할 수 있어 사진 같은 표현이 까다로운 이미지는 이 방법을 주로 이용한다. 이때 이형지에 인쇄를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고무층을 얇게 도포한 후 이미지가 거꾸로 보이게 인쇄를 해야 한다. 오프셋인쇄가 끝난 후에는 그 위에 하얀색으로 스크린인쇄를 하고 접착제를 도포해 완성한다.

이렇게 준비된 고무전사물은 원하는 옷감에 다리미 등 뜨거운 열기구를 이용해 전사하면 자신이 원하는 새로운 느낌의 디자인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된다.

고무전사는 면이나 폴리에스터, 나일론 등 대부분의 옷감에 전사가 가능하고 신축성이 있는 옷감에도 이용되기 때문에 사용범위가 넓은 점도 장점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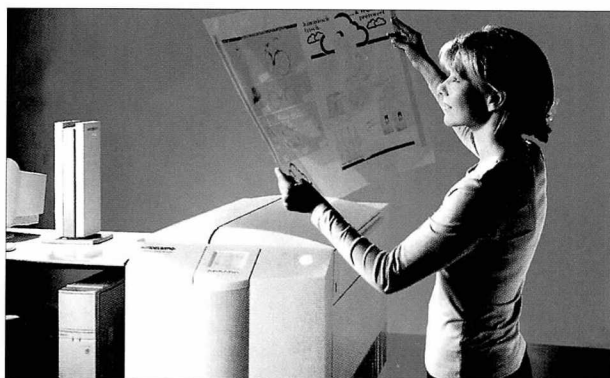


▲ 한림데칼에서 제작한 고무전사제품들

<윤재호부장>

홈페이지 : www.newskp.co.kr

부가가치 창출! '투자비 절감' 이 관건입니다



고가의 장비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중고기기로도 훌륭한 제품을 생산하고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중고인쇄기기 및 프리프레스 장비 전문공급 업체인 뉴에스케이 시피와 상의하시면 그 길이 보입니다."

(주)뉴에스케이피

서울시 중구 필동2가 16-24 남지빌딩 401
전화 : 2279-0919 팩스 : 2271-1221
홈페이지 : www.newskp.co.kr

취급 품목 : 각종 인쇄기 · 컴퓨터기기 일체
프리프레스장비